

종합·해설

안·박 무소속 태풍 ... 정치판 지각변동 오나

(철수) (원순)

■ 여야 서울시장 후보 고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가 '무소속 변수'의 태풍을 만나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 밖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재비를 갖추는 따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치권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후보의 대중적 인기가 파괴력을 발휘한다며 현재의 양당 구도를 허무는 등 기존 정치질서 재편을 초래,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 변수가 급부상함에 따라 '대항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한나라 "당내 인물론 승리 장담 못해" 유명 기업인 등 영입 목소리

민주 "안·박 통합 무대 끌어들이기"... 단일후보 선출 무산땀 최약

최고위원,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무소속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당내 인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 김황식 총리와 정운찬 전 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유명 기업인을 영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소속 입지자들과 야권의 후보 단일화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추측 연휴를 거치며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과 야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무소속 변수의 등장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이직 시간이 있으니 무소속 입지자들과 야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후보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 철수 출마설을 계기로 지지부진한 야권 통합후보 선출 논의 속도를 내고 있다.

순학규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민주진보진영 통합의 출발점으로 보고 어떻게든 통합후보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박 상임이사와 함께 안 원장까지 통합의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계파 및 후보 간의 첨예한 입장과 진보 정당과의 견해차로 통합 후보 선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여당과 '혁신과 통합'은

야권 통합 후보 선출과 관련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 측에서는 통합후보 선출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천재배 최고위원과 신계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한병숙 전 국무총리와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원혜영·전병헌 의원과 김한길·이계안 전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내부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소속 입지자들이 야권 단일 후보 선출 제안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야권통합 후보 선출이 무산된다면 서울시장 보선 구도는 야권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노현 오늘 소환 ... 핵심은 2억 대가성

검찰 "대가 확산... 조사후 사법처리"

광측 "순수 지원" 정황증거 맞설 듯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및 거버넌스 의혹의 당사자인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광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광 교육감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못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광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 증거물을 들어이며 광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광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측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한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광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 돈이 광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인지, 관공비와 교육청 특수사법비, 선

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뒤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애초 총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급전수수를 둘러싼 전후 진술과 약속관계를 세밀하게 캐물어볼 예정이다.

검찰은 입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측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광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광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 조사에 대비해 온 광 교육감 측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고 후보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불응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광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오후 광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진지하게 고민중"

안철수 청춘콘서트 기자간담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 대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고민 중의 하나지만 깊은 수준의 고민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청춘콘서트'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동시에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안 따라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질문에는 "비편적인 입장"라며 "많은 사람이 (기존 정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말은 일들이 있다 보니 결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업에 충실하고 청춘콘서트가 다음 주에 끝난다. 그것을 잘 마무리 하는 게 최우선 순위다.

▲준경쟁은 인물로 남는 게 좋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고민이다. 제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가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검증이 안 돼 고민이 필요하다. 의사를 그만둘 때 6개월, CEO를 그만둘 때 1년 고민했다. 이번 고민은 얼마나 길지 모르겠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일반론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정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항상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 10년 동안 기회가 많았는데도 거부한 이유가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 의식 때문이었다. 혼자 들어가서 혼자 높은 자리에서 잘 대접받다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나오면 인생 낭비다. 대통령이랑 한 사람이 크게 많이 바꿀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시장도 바꿀 수 있는 게 많다. 국회의원과과는 다르다.

▲무엇을 바꾸고 싶다.

▶우리나라는 너무 전시행정이다. 하드웨어, 즉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 해킹을 당하거나 문제가 많고 복구 비용이 초기 투자보다 더 든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영어로는 인프라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 있다. 서울



박원순 10일 이전 표명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기정사실이 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측이 출마에 대비한 준비에 나서는데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 상임이사의 측근인 희망제작소 윤석인 부소장은 4일 "지난 2일 백두대간 중주를 하고 있는 박 상임이사를 만나고 왔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상임이사의 의사가 확고한 만큼 본인의 소명의식을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가 박 상임이사를 만난 지난 2일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가 정국권을 강타한 때였던 만큼 일종의 출마와 무관하게 박 상임이사의 출마선언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윤 부소장은 특히 "당초 10일 백두대간 중주를 마치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마지막 설악산 구간은 통제 구간이 많아 건너뛸 곳이 많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입장 표명



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상임이사가 출마선언을 앞두고 막바지 '구상'에 들어갔지만 그의 측근들은 이미 서울시장 출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들은 우선 서울시장 보선과 관련된 선거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선거 운동에서 내세울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임이사는 일단 시민사회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입당해 경선을 거쳐서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박 상임이사는 "정당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면 서울시장 통합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를 지지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는 '시민후보추대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후보로 추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artoon titled '빛의만정' (Light's Manjeong) by Kim Jung-woo. It depicts a character with a pig-like head and a sign that says '대구항상' (Daegu always). The character is holding a sign that says '와' (Wa) and another that says '물' (Water). The cartoon is signed '김종우' and includes the text '우리라고 금메달이 없소냐?!' (Even we don't have a gold medal, do we?!).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agency. It features multiple columns of travel packages for various destinations including China (Shanghai, Beijing, Chengde), Europe (Paris, London), Southeast Asia (Singapore, Bangkok), Japan (Kyoto, Osaka), and the US/Canada (Chicago, Denver). Each package lists prices, inclusions, and departure dates.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Lotte JTB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